

칼럼

장기채 주필



실버 쓰나미는 밀려오는데

실버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 고령화라는 인구 재앙이 한국에 다가온지도 오래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이면 고령사회, 14%가 되면 초고령사회, 20%를 넘어가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프랑스는 154년, 영국은 99년, 미국은 90년, 독일은 77년 소요되었고 일본은 35년 걸렸다. 한국은 2000년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프랑스가 154년 동안 달려온 길을 우리는 26년 만에 초고속 질주하는 것이다. 거기다 인간 생명의 연장으로 노인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들에게는 일이 있어야 하고 건강도 필요하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빠른데도 고령 친화산업의 진전은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고용 없는 성장으로만 일관해 왔다. 청년 일자리 부족, 중장년층 조기퇴직,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한 노인일

자리와 복지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의학의 발전은 '100세 시대'로의 세상을 진입시켰다.

2050년경 한국은 전체소비자 3명중 1명은 노인일 정도로 노인이 막강한 소비 주체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최근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이다.

국가 성장 동력의 기반이 청년층에서 노년층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꾸준한 고령자 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버산업 수준은 국내 총생산(GDP)의 5.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독일, 일본에 비해 우리는 실버산업의 발걸음이 매우 느리다. 지금의 추세라면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는데 10년 밖에 안 걸린다. 공격 측면에서 노인의 나이는 법적으로 보면 그 기준이 법령에 따라 다양하

다. 노인복지법에는 65세, 국민연금법에는 60세로 규정한다. 반면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에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50~55세 미만은 준 고령자로 정의한다.

이처럼 노인 연령 기준은 들쭉날쭉해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65세로 인식한다.

사회 일각에서는 70세로 하자는 의견도 많다. 어쨌든 한국은 일하는 노인이 많다. 한국 노인들이 나이 먹어서까지 일을 많이 하는 이유는 노후 보장 체제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45세가 되면 정년퇴직한다는 '사오정'이나 55세까지 회사에 남아 있으면 도둑이라는 뜻의 '오륙도'는 일본의 경우와는 전혀 무관한 예다.

나이가 많은 전문가들은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나 모습만 봐도 어디에 이상이 생겼는지 금방 알아내기 때문에 기계 산업이 발달한 일본에선 매우 가치 있는 노동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학교를 졸업하고 독립한 나

이인데도 취업을 못한 자식의 생계까지 책임지느라 퇴직 후 이던 저런 일자리를 전전하는 중산층 노인도 많다.

그러나 일하는 노인의 증가는 평균 수명 80세 시대로 접어들고 고령화 사회의 필연적인 추세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불과 8년 후인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노년은 아무도 피하지 못하는 모두의 절실한 현실이다.

이제 일하는 노인의 증가는 평균수명 80세 시대로 접어들고 고령화 사회의 필연적인 추세다. 지금부터라도 풍부한 직업경력과 인생 경험을 터득한 노인들이 생산적 활동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청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어울려 일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년층의 고용을 막는 장벽이 없어야 한다.

고령자의 재취업은 삶의 의미 문제, 사회활동의 촉진, 노년기의 소득 보장이라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의미를 부여한다.

지금 이 나라의 고령자(65~79세)의 42.7%가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노인들이 손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정보 시스템부터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노년의 현역'이 더 행복한 이 유다. 노후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더 늦기 전에 실버 쓰나미에 맞서는 희망의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

社說

한빛1호기 주민불안 씻어야

지난달 10일 발생한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열출력 급증 사고는 당시 제어봉 조작자의 계산 오류 및 조작 미숙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자격자가 원자로 조종·감독면허자의 지시감독 없이 원자로를 일부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다니 걱정이 태산이다.

앞서 한빛 1호기는 정기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돼 가동을 중단했다가 지난달 9일 재가동 허가를 받고 가동을 시작했으나 재가동 하루 만에 지난달 10일 원자로 열출력 증가로 다시 가동을 멈췄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 등이 드러나 원안위가 특별조사를 진행해 왔다.

특별조사단은 사건 당시 제어봉의 과도한 인출 경위,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 건전성, 제어봉 구동설비의 안전성, 원안법 위반 등 미비사항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지난달 한빛 1호기의 열출력이 급증한 것은 근무자의 계산 오류와 관련이 있다. 원자로 제어봉을 조작하는 그룹 간의 편차

가 생겼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어봉을 인출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제어봉 인출 값이 잘못돼 원자로 출력값이 18%까지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것이다.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을 14년 만에 바꿨지만 원자로 인출 값을 계산한 원자로 차장은 관련 교육 훈련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원자로 제어봉 조작 그룹 간의 편차가 발생한 것은 제어봉 조작자의 운전 미숙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조사단은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에 무자격자가 원자로조종감독면허자의 지시·감독 없이 원자로를 일부 운전한 사실도 확인했다.

부실관리의 온상이 한빛 1호기의 실상이었다니 벌어진 일이 다 물어지지 않는다.

한수원은 처음부터 재정보해 한치의 빈틈도 없이 해야 할 것이다. 원전사고는 단 1번에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신문으로 배우는 오늘의 명언

“모든 것을 용서받은 젊음은 스스로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는다. 스스로 모든 것을 용서하는 노년기는 아무것도 용서받지 못한다.”

Youth, which is forgiven everything, forgives itself nothing; age, which forgives itself everything, is forgiven nothing.

- 조지 버나드 쇼 -

등록번호: 광주시 0001 (민간)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 경 호
호남신문	편집인·편집국장 강 서 원
대표전화 (062) 229-6000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팩 스 (062) 222-5548	서울 취재 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광 고 국 (062) 222-5544	TEL (02) 2238-0003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honam.com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자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정책방향이 인권중심으로 바뀌어 따라 불법집회시위의 발생 건수가 과거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성숙해진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선진집회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간혹 내 목소리만을 내세우는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집회시위가 열리곤 하는데, 가장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소음 문제이다.

현재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주변지역의 소음기준은 주간 65dB(데시벨) 이하, 야간 60dB 이하이며 기타지역은 주간75dB 이

하, 야간 65dB 이하이다. 70dB 정도의 공사장 소음만 들어도 귀가 멍멍해지고 다른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데, 업무는 물론 대화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강한 확장성기 소음이 이와 비슷한 데시벨이 다.

참가자들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시민들의 권리도 중요하다. 내 권리를 찾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침해하게 된다면, 이것은 정당하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남을 배려하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이야말로 가장 진정성 있게 목소리를 전달 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

백승진 /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노인 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로 UN기준에 따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고, 노년층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점점 늘어가는 노인복지법상 노인 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와 더불어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등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노인 학대의 발생현황을 보면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학대건수가 무려 90%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학대 행위자와 학대 피해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84.4%가 아들, 딸, 배우자로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혹여 주변인이 피해사실을 눈치챈다고 하더라도 “사는 게 힘들어서 잠시 이성을 잃은 것뿐이에요”, “나만 입을 다물면 모두가 괜찮다” 등 지식,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그 사실을 숨기며 노인 자신과 학대 가해자 또는 주변인을 더욱 나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

노인 학대는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학대 받는 거와는 차이가 다르다. 쇠약하고 힘이 없는 노인을 학대하는 것은 범죄다.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만이 학대로 고통 받는 노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노인 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을 명심하자.

정은주 / 순천경찰서 여성청 소년계

문화용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